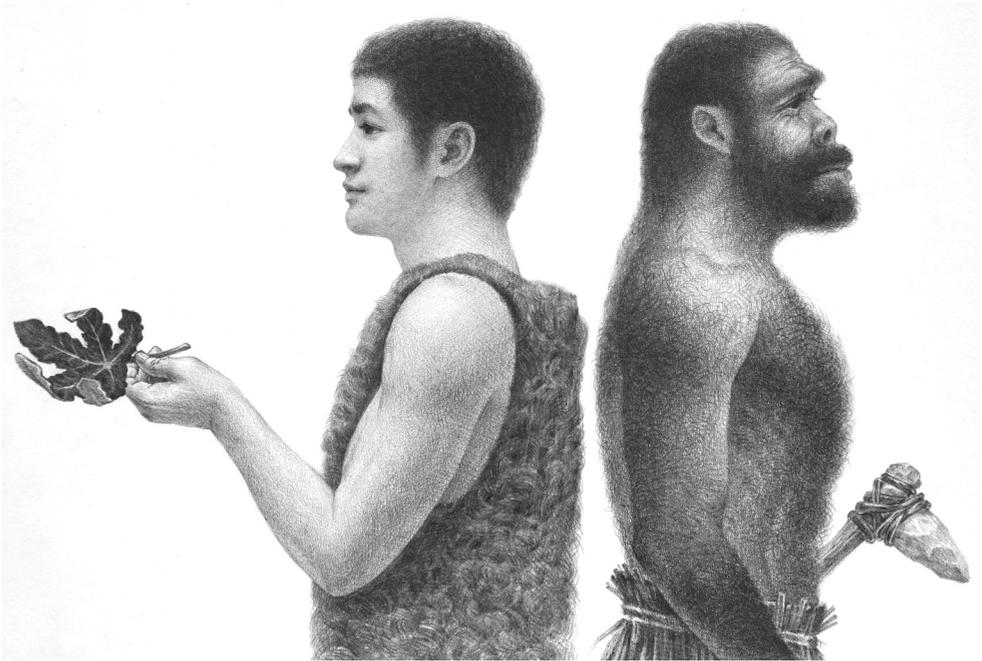


아담과 네페리림

Adam & Nephilim



김 창 배 지음

 새 빛의 소리

아담과 네프리림

Adam & Nephilim

지음 김 창 배

아담과 네피림 목차 (Contents)

제1장 인류의 두 조상 - 아담과 네피림 7

- 아담을 지을 당시는 '창조 셋째 날' 14
-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셋째 날의 수 '3' 19
-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여섯째 날의 불완전 수 '6' 25
- 첫 단추의 오류로 인한 성경의 많은 난제들 28

제2장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 - 원시인류 네피림 31

- 가인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유 36
-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던 시대 39
-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는 이유와 그들의 실체 47
- 모세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창세기에 언급한 의도 50

제3장 하와와 여자의 DNA는 다르다 53

- 하나님을 인지하는 DNA - 있다 vs 없다 55
- 창조 시기 - 아담 이후 vs 남자와 동시에 59
- 창조 장소 - 에덴동산 안 vs 에덴동산 밖 60
-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네피림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 이유 62
- 만든 재료 - 아담의 갈빗대 vs 흙 67
 - 본질 - 생령의 DNA 있다 vs 없다
- 주어진 식물 - 영의 양식(말씀) vs 육의 양식 69
- 허락하신 축복 - 영생의 복 vs 이 땅의 복 71
- 자손의 열매 - 거룩한 씨 vs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73

제4장 가인이 낫 땅에서 만나 결혼한 여자는 누구인가? 79

- 가인이 결혼한 여자가 아담 자손이 아닌 근거 81
- 장차 바벨론 지역이 되는 '낫 땅' 87
- 뱀의 후손을 낳기 위해 예비된 가인의 아내 - 네피림 89

제5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 95

- 사머니즘 무속종교와 기복신앙의 시조(始祖) 가인 100
-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깨닫는 영적 예배의 기원 아벨의 제사 103
-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 나타난 악(惡)의 열매 105
-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 나타난 선(善)의 열매 107
-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가인의 계보 111
- 여자의 후손들이 나오는 셋의 계보 115
- 구속사 성취를 위해 허락하신 가인과 아벨의 제사 117

제6장 태초에 창조한 천지의 비밀	121
태초에 창조한 천지는 영적 세계에 드러난 최초의 하늘보좌	123
단수 하늘에서 복수 하늘로의 전개	127
생명수가 흐르는 궁창 아래와 궁창 위	130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태초의 천지	134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토기장이 하나님	136
태초의 천지는 인류 생명 태동의 근원지	140
제7장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는 다르다	147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과정은 다르다	150
에덴동산에서 지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159
사람을 짓는 과정이 다르다	162
제8장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165
이 땅에 임한 최초의 성전 에덴동산은 영적 세계	168
선과 악을 드러내는 율법의 예표 - 선악과	171
선악과 사건으로 맺어지는 선과 악의 열매	174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	178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이유	182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실과의 실제	185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세워 놓으신 목적	189
선악과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191
제9장 가인의 후예 - 네피림 혼혈족	197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예고된 율법시대	200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예고된 복음시대	208
에녹의 죽음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볼 절기	212
에녹이 예비한 옥과 그 목적	214
제10장 노아 홍수 이후에도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들	219
홍수 이전까지 존재한 순수혈통의 네피림	222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들의 실체는?	224
옥을 예비해야 하는 이유	231
함의 계보인 홍수 이후의 네피림의 후손들	235
뱀의 후손의 그루터기로 방주에 들어간 함의 부인	238
제사장 나라의 그루터기 - 노아의 셋째 아들 셈	242
노아가 가나안(함)을 저주한 이유	246
갈렙이 구한 '이 산지'가 지닌 구속사적 의미	250
맺음말	256
이해도움	259

도표 목차 (Contents)

6일간의 창조 과정	13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 환경 : 창조 셋째 날	18
아담이 살던 시대의 성경적 추정	44
아담이 살던 시대 - “BC 4,000~6,000년 신석기 시대의 농경목축사회”	45
하와와 여자의 창조 시기	59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네피림의자손을 번성케 하신 이유	66
가인이 결혼한 여자가 아담 자손이 아닌 근거	83
뱀의 후손을 낳기 위해 예비된 가인의 아내 - 네피림	93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가인의 계보	114
단수하늘에서 복수하늘로의 전개	129
생명수가 흐르는 궁창 아래와 궁창 위	133
토기장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139
태초의 천지는 인류 생명 태동의 근원지	145
순서, 내용, 성격이 서로 다른 창조의 과정	158
선악과 사건으로 맺어지는 선과 악의 열매	177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실과의 실체	188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예고된 율법시대	205
가인과 셋의 계보	209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들의 실체는?	228
제사장 나라의 그루터기 - 노아의 셋째 아들 셈	244
노아가 가나안(함)을 저주한 이유	248
네피림의 역사와 현재	254
두 부류의 인류 조상	260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과 그 이유	261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나올 때의 지구환경	262
순서와 성격이 서로 다른 창조	263
하나님 나라 성취 과정	264
태초의 천지와 그로부터 전개된 세 하늘	265
에덴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세워 놓으신 목적	266
홍수 이후에도 존재한 네피림 혼혈족 (성경의 근거로 찾아본 그 뿌리)	267
노아 홍수 때 죽은 모든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 ‘옥’	268
아담과 네피림	269



제 1 장
인류의 두 조상 - 아담과 네피림

사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류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아메바로부터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쳐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는 진화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해주지 않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태어났으니 그저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롭기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침묵하던 창세기 말씀에 숨겨져 있던 인류기원의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는 두 부류로 탄생되었습니다. 천지창조의 셋째 날에 창조된 아담과 여섯째 날에 창조된 네피림은 분명히 서로 다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첫 사람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인류의 두 조상으로 창조하신 충격적인 진리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6일간의 창조사역을 통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보면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사람을 땅의 짐승들과 함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장의 기록은 여섯째 날의 창조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해오곤 하였습니다. 그러

나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2장의 사람 창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기원의 비밀이 천지창조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으나 이제 그 비밀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두 부류로 지어졌다니 이는 듣도 보도 못한 경천동지할 이야기 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건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인류의 기원으로 첫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각각 달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지구환경이 서로 완전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온갖 풀과 과목이 자라난 환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반면에 2장에는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을 지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장과 2장에 서로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한된 한 권의 책 속에 무의미한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을 창조하는 기사가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실 구원 계획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신학자나 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거룩한 씨와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땅에 뿌려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열매와 짐승 같은 사람의 수 666의 열매를 구별해서 추수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를 이 땅에 뿌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뿌린 씨에 따라 추수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두 부류의 인류조상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구환경이 서로 다른 시기에 그들을 각각 지으시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를 통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인류가 서로 다른 두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를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두 조상을 찾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됨에 이 제야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창세기를 읽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는 읽었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무엇보다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읽기 시작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뭔가 선명하지 않아 창세기를 붙들고 씨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창세기를 읽었음에도 사람들의 눈이 감겨 있어 인류조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제 그 사실이 선명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

셋째 날까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땅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기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과 생명체를 창조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짧은 한 장에 다 기록할 수 있다니 이는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땅의 어떤 뛰어난 베스트셀러 작가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 장에 방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짧은 한 장 안에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함축하여 모두 담아 놓았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6일간의 창조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 곳에 모여 있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속에 있는 물을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물을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물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의 창조 사역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나누이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궁창을 나는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즉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달린 모든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 사는 각종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일간의 창조하신 내용의 대략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신 후, 창세기 2장 4절에 다시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의 상태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7절에 첫 사람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 생태 환경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4-7)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여섯째 날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인류기원인 아담과 하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 1장 27절의 인간을 창조하는 시기의 자연환경과 창세기 2장 4-7절에 기록된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동일한 창조를 다르게 설명한 기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26-31)

6일간의 창조 과정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빛 → 낮 어두움 → 밤	궁창 위의 물 (3천층) 궁창 (2천층) 궁창 아래의 물 (1천층)	물 → 땅 모인 물 → 바다 지구 땅 흙으로 아담 창조 (생령)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어 낮과 밤을 나누심 궁창에 있는 광명 으로 징조, 사시, 일자와 연한을 이룸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대 로 남자와 여자 (생기가 없음)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 는 과목			

아담을 지을 당시는 창조 셋째날

이제 모세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여섯째 날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가장 나중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반면 2장 4-7절에 기록된 사람을 지을 당시를 살펴보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구환경은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기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날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지구환경 시기에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모순되게 기록했다는 것일까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기에 모세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책인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류기원을 기록하면서 사람을 지을 당시의 환경을 모르고 기록했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의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권위는 땅으로 곤두박질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을 지을 당시의 환경이 어떠한지 살펴해보겠습니다. 아담을 지을 당시의 환경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과정 중에서 어느 날의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9-13절에 기록된 셋째 날 창조의 지구환경이 아담이 창조될 시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며 여기에는 무척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먼저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환경의 조건을 언급해 놓은 창세기 2장 5-7절의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첫 사람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환경이 어떠한지 세밀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5-7)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을 지을 당시에 지구 땅에는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구 땅이 초기 단계에 생성되는 연대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다나 하천

등에 있는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모인 수증기가 응결되어 구름이 형성되어 하늘에 떠다니다가 점점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땅에 내리게 됩니다. 사람을 지을 당시 환경이 이러한 지구 땅을 둘러싼 물의 순환과정이 생성되기 전이라는 것을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을 지을 당시 지구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이 땅의 최초의 사람으로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기원으로 지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성경의 진술입니다.

셋째,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들이나 밭에서 나는 채소나 열매들은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모세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지을 당시에 지구 땅에는 사람이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기사를 살펴보면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짓는 일은 셋째 날 창조 사역의 내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짓기 전에 아담을 지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 창조시기를 정확히 밝혀주는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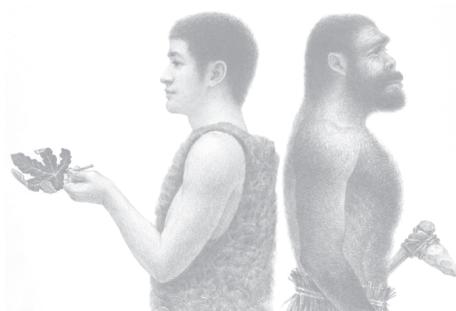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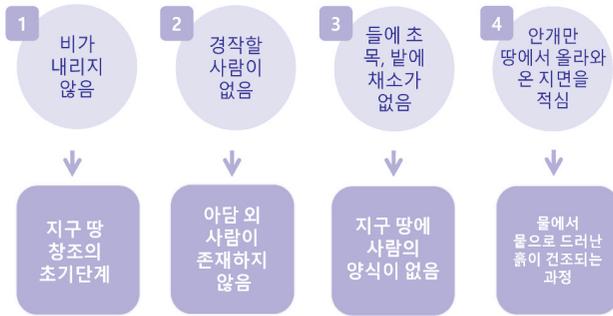
넷째,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담을 지을 당시 지구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땅에서 안개가 올라온다는 것일까요? 안개가 올라오는 현상은 눈이나 비가 내린 후에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지표면의 젖은 땅이 건조되고 마르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모세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땅에서 안개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껏 비가 내린 적이 없지만, 땅은 젖어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9-10절의 창조기사를 보면 셋째 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물에 잠겨있던 물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을 땅이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 물속에 잠겨있던 지구 땅이 물에서 드러났을 때 지표면은 물에 축축하게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은 젖은 지표면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안개가 발생하는 상태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지을 당시의 이 땅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신 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물에서 드러난 땅의 흙을 채취해서 바로 첫 사람 아담을 지은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깊은 의도가 창세기 2장 4-6절에 담겨있습니다. 본문 기록을 다시 종합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

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기록함으로써 아담을 지을 당시의 여건을 먼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2장 7절에 명시함으로써 물에서 드러난 물의 흙으로 바로 이어서 아담을 지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 환경: 창조 셋째 날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셋째 날의 수 '3'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역사 중에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을 지을 당시 지구환경의 조건과 일치하는 날을 찾게 된다면 아담이 창조되어 이 땅에 출현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바다 밑 물속에 잠겨있던 지구 땅이 드러나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분리되어 드러난 지표면이 마르는 과정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상태를 언급한 것은 당시의 지구환경이 어떠한지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최초로 물에서 드러난 깨끗한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깊은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창세기 1장의 6일간 천지를 창조한 역사 중에서 아담을 지을 당시의 네 가지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날이 몇째 날인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당시의 환경을 묘사하고 있으니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난 날을 기준으로 아담 창조의 날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난 날은 셋째 날 창조역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13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지구 땅이 물에서 드러난 것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9-13)

창세기 1장 9-13절의 본문은 창세기 2장 4-6절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상호 부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6절의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구환경을 갖춘 날을 어렵지 않게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는 땅이 물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각종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0절은 물에서 드러나는 지구 땅을 말하고 있지만 2장 6절은 이 땅의 상태가 젖어있다가 마르면서 안개가 올라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0절과 2장 6절에 묘사된 지구환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흙은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을 한곳으로 모으고 드러나게 하신 물, 곧 땅이라 부르신 물에서 채취한 흙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흙을 채취하여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이 처음으로 드러난 셋째 날 아담을 지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기

록하고 있는데 아담을 지을 당시 지구 땅의 환경은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 11절의 땅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 의도는 아담을 셋째 날에 지었음을 증거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지은 시기가 셋째 날의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6절에 네 가지의 지구 땅의 환경 조건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가 인류의 기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의 자손들이 셋째 날 인류기원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 역시 담겨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류의 기원이 되는 사람을 짓는 시기를 각기 다르게 기록한 모세의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인류조상을 처음부터 각각 달리 예비했다는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셋째 날과 여섯째 날 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인류의 조상을 지으신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인데 이를 나타내는 숫자 3과 6이라는 날 수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이들을 지으신 날짜의 숫자 안에 감추어 놓

은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가 두 부류의 사람을 창조한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 기록해 놓은 것은 태초에 드러내신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두 부류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이며, 나아가 당신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인류의 두 부류의 조상을 같은 날에 짓지 않았다는 구속사의 비밀을 심어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셋째 날의 수인 3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인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의 육의 몸을 예비함과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신령한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 셋째 날 정결한 흠으로 아담의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셋째 날 아담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호와의 7절기에 담겨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아담을 지으신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봄 절기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가을 절기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날 아담을 창조하신 데에는 여호와의 7절기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담겨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초림하실 때 성육신 할 수 있는 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입으실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물에서 올라오는 깨끗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정결한 육의 몸을 마련하기 위해 셋째 날 최초로 채취한 정결한 흙으로 가장 먼저 첫 사람 아담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성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로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이 정결한 육의 몸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을 지은 날의 수 3은 장차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3일째 되는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성소로 들어가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생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이 7절기 중 가을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를 완성하실 터인데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셋째 날 첫 아담의 육의 몸을 지으신 것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으로 성육신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정결한 아담의 몸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셋째 날 정결한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사역 안에 씨앗으로 담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